빚으로 버티던 광주 자영업자…연체율 '광역시 최고'

연체율 전국 평균 3.6배…자영업자 가계부채 증가율도 1위
연매출 5천만원 미만 30%…취약차주 비중도 광역시 최고

코로나19 경기 침체 속에서 '빚으로 버텨내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면서 지난해 광주지역 자영업자 연체율이 전국 평균의 3.6배에 달할 정도로 치솟았다.

광주 자영업자 가운데서는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30%에 달하며,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등 전통서비스업 비중이 63.6%를 차지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이상철 한국은행 부산본부 기획금융팀 과장이 발표한 '가계부채 점검' 보고서 자료에 담겼다.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기를 포함한 최근 4년 동안 광주지역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과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 증가율 모두 7대 특·광역시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광주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7.2%로, 전국 평균(5.9%)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해당 자료가 분석한 부산지역 가계부채 증가율(5.2%)을 웃돌 뿐만 아니라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기준 광주 자영업자 가계부채 증가율도 14.0%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11.9%로 집계됐다.

광주 시민들의 부채 건전성 악화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은 1.8%로, 전국 평균(0.5%)의 3.6배 수준이며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의 빚 부담이 큰 건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지난 2019년 기준 연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비중은 광주가 29.9%로, 전국 평균(28.1%)을 웃돌았다. 지난해 기준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 비중은 68.5%에 달했다.

인건비와 재료비 등 운전자금 비중이 높은 전통서비스업 비중도 63.6%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광주 취약차주는 전체 차주의 6.3%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 역시 전국 평균(5.0%)을 웃돌고 7대 도시 최고를 기록했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 하위 30%에 드는 저소득층이거나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저신용자를 말한다.

자영업자 연체율 최고인 광주는 60대 이상 고령층 연체율도 전국 평균(0.6%)의 2배 수준인 1.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계부채 부실화 속에서도 광주 차주 수는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1.4%를 나타내며 꾸준히 늘고 있다.

광주지역 차주 1명당 가계부채는 2017년 말 7000만원, 2019년 말 7700만원, 2021년 말 8700만원 등 증가 추세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차주당 빚이 13.0%(1000만원↑) 불어난 것이다.

가계대출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탓에 광주지역 가계부채의 예금은행 비중은 51.9%로, 전국 평균(59.2%)을 밑돌았다.

대출 종류를 살펴보면 광주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47.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주택 외 담보대출(23.6%), 신용대출(22.6%), 기타(6.3%) 등 순이었다.

한은 부산본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저금리와 코로나19 관련 생활자금 지원정책, 취약계층 원리금 상환유예 등 우호적인 금융여건이 있었지만 향후 각종 금융지원 완화조치가 축소되면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독일서 '최고' 평가

성능·효율 등 6개 항목 '매우 우수'
스티바 평가서 3년 연속 1위 성과

삼성전자 비스포크 냉장고가 독일 소비자 매체 '스티바'(StiWa)에서 진행하는 '상냉장·하냉동(BMF, Bottom Mounted Freezer) 냉장고' 평가에서 1~2위를 차지했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스티바는 9월에 독일에서 판매되는 상냉장·하냉동 냉장고 총 10개 모델을 평가했고,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RL38A776ASR'(사진)과 'RB38A7B6AS9' 등 2개 모델이 최상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이 제품들은 평가 모델 중 유일하게 종합 평가 결과에서 '매우 우수'(Sehr gut)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과를 포함해 스티바가 매년 진행하는 상냉장·하냉동 냉장고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냉장·하냉동 제품은 유럽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냉장고 형태로, 유럽 시장에서 판매된 삼성 냉장고 가운데 약 70%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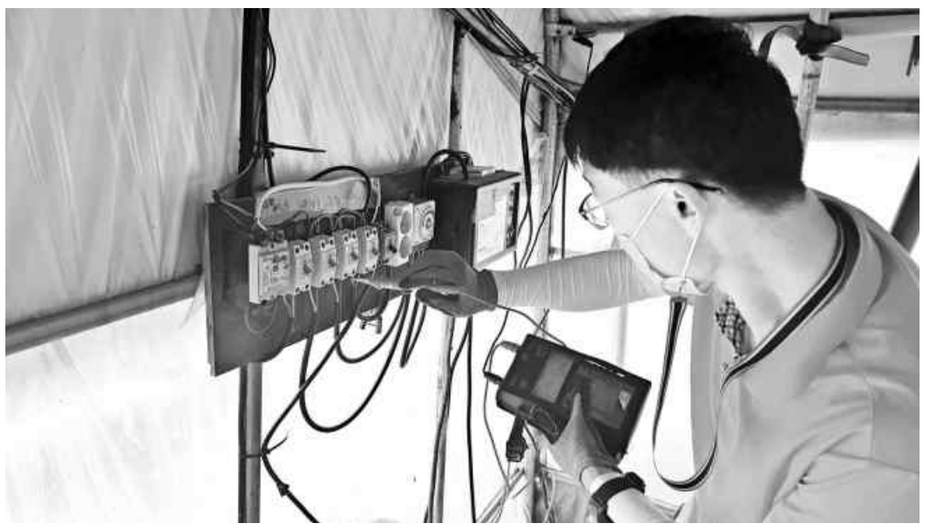
이번 스티바 평가에서 1·2위에 선정된 삼성 냉장고는 총 7개 평가 항목 중 냉장 성능·냉동 성능·에너지 효율·온도 안정성·소음·고장 대응 등 6개 항목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Sehr gut)를 획득했다. 사용성 항목에서도 '우수'(Gut)를 부여 받아 2018년 이후 삼성 상냉장·하냉동 냉장고 중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 제품들은 1도어 비스포크 냉장고와 하나의 제품처럼 깔끔하게 모듈 조합이 가능하고, 냉동실의 온도를 냉동(영하 23~영하 15도) 뿐만 아니라 소프트 냉동(영하 5도)·약냉동(영하 1도)·냉장(2도) 등 보관하는 식재료에 따라 4가지로 변경할 수 있는 '쿨 셀렉트 플러스'(Cool Select Plus) 기능을 탑재하는 등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냉장실과 냉동실을 각각 분리해 냉각하는 '트윈 쿨링 플러스'(Twin Cooling Plus) 시스템과 냉기 보존에 탁월한 '메탈 쿨링'(Metal Cooling) 기능 등 식재료를 더욱 신선하게 보관하는 삼성만의 독자 기술도 적용됐다.

양혜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삼성 냉장고는 이번 스티바 평가를 포함해 유럽의 다양한 소비자 전문 매체로부터 잇따라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차별화된 제품력이 곧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신뢰를 얻고 있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화재 예방 시설 하우스 전기 점검 광주 임곡농협 관계자가 광산구 한 온실 농가를 찾아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임곡농협은 광산구 34개 마을을 대상으로 무상 점검을 벌였다. 〈농협 광주본부 제공〉

광주·전남 지능형 원격 전기검침 인프라 보급 반토막

전국 평균 보급률 48%
광주·전남 42%로 평균 이하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사물인터넷으로 전기검침을 하는 지능형 원격 검침 인프라(AMI) 보급 건수가 전년보다 줄면서 보급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방문 전기검침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지역 원격 검침(AMI) 보급 누적 호수는 81만호로, 2020년 목표 194만호에 대비해 42%의 보급률을 나타냈다.

전국 목표 보급 호수는 2250만호로, 이 중 48%에 해당하는 1072만호가 보급됐다.

전국 평균 보급률을 웃도는 지역은 제주(91%)와 부산(54%), 경남(53%), 서울·경기북부(각 51%), 남서울(49%), 경기·인천(각 48%) 등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 보급된 원격 검침 시스템은 7만호로, 전년(15만호)에 비해 반토막 났다.

지난해 원격 검침(AMI) 고장은 광주·전남에서 1만9202건 일어났는데, 이는 전년(1만1391건)보다 68.6%(7811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 고장 건수는 13만5011건에서 21만5533건으로, 59.6%(8만522건) 증가했다.

지능형 원격 검침 인프라(AMI) 보급은 지난 2010년 1월 정부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 수립에 따라 한전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55.66 (-27.12)
↓	코스닥	751.91 (-18.13)
↓	금리(국고채 3년)	3.759 (-0.008)
↑	환율(USD)	1393.60 (+5.60)

청약통장도 '부모찬스'…증여·상속 증가

광주·전남 5년새 50%↑

집값 상승의 여파로 최근 5년 간 광주·전남에서 청약통장 가입자의 납입금과 회차를 증여·상속받은 건수가 50% 상당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2022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31건이던 광주·전남지역 청약통장 명의변경 건수는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2020년과 지난해 각각 162건과 195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통장 증여·상속 건수는 5년 전과 비교해 48.85% 증가한 것이다.

집값 상승으로 매매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물려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2017년 63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46.03% 증가했고, 전남지역은 같은 기간 68건에서 103건으로 51.47% 증가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나 상속이 가능하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와 배우자,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회사 사정상, 매매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